

- 주요 뉴스: ECB 부총재, 양적긴축은 내년에 시작. 다만 매우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
 - 암호화폐거래소 Binance, 유동성 부족 직면한 경쟁업체 인수. 암호화폐 가격 급락
 - 유로존 9월 소매매출, 전월비 증가. 양호한 소비자 수요 등에 기인
 - 중국, 미래 통치에서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를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간선거 결과 발표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강화 지속

주가 상승[+0.6%],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관련주 강세 등으로 0.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6%,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월 물가상승률 둔화 예상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장단기 국채수익률 스프레드는 9월 이후 최저

※ 원/달러 1M NDF환율(1374.7원, -10.2원) 0.7% 하락, 한국 CDS 하락

		11/8일	11/7일	전일대비			11/8일	1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28.1	3,806.8	0.56%	국채 금리 10y	미국	4.13%	4.21%	-8bp
	유럽	421.61	418.34	0.78%		독일	2.28%	2.34%	-6bp
	중국	3,064.5	3,077.8	-0.43%		영국	3.55%	3.64%	-9bp
	일본	27,872	27,528	1.25%	CDS 5y	한국	61bp	65bp	-4bp
	한국	2,399.0	2,371.8	1.15%		중국	91bp	95bp	-4bp
	달러지수	109.61	110.12	-0.47%	위험 지표	EMBI+	-	422	-
유로화	1.0075	1.0020	0.55%	VIX		25.54	24.35	4.89%	
환율	엔화	145.62	146.63	0.69%		WTI유	88.91	91.79	-3.14%
	위안화	7.2310	7.2312	0.00%	원자재	구리	366.8	360.4	1.79%
	원화	1,384.9	1,401.2	1.18%		금	1,712.6	1,675.6	2.2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부총재, 양적긴축은 내년에 시작. 다만 매우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

- 데 쿼도스 부총재는 내년에 분명히 양적긴축을 시작할 것이며,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발언. 한편 양적긴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
- 독일 중앙은행의 나겔 총재는 비록 경제성장이 훼손된다고 해도 ECB의 금리인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종식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조기에 종료하지 않아야 한다고 첨언
- 한편 이날 독일 2년물 국채금리는 ECB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 등을 반영하며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2.32% +12bp). 최근 유로존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 10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3%를 기록하는 등 몇몇 국가에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일부에서는 ECB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예금금리를 3%까지 높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부진한 경제 여건 등으로 금리인상은 그 전에 중단될 가능성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암호화폐거래소 Binance, 유동성 부족 직면한 경쟁업체 인수. 암호화폐 가격 급락

- Binance의 창평자오 CEO는 중대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FTX가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FTX를 완전히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FTX의 계열사 Alameda는 FTX가 발행한 자체코인 FTT를 활용하여 생태계를 확대했는데, 최근 FTT 가격 하락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
- Binance의 FTX 인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업체들의 유동성 부족 관련 우려가 증폭되면서 11/8일 오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각각 12%, 18%대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다수의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

■ EU, 가스 가격 상한제 시행 관련 회원국 간 이견 지속

-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그리스 등은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과도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국가 간 에너지 비용 차이의 급격한 확대 방지 대책 등을 선호

■ 유로존 9월 소매매출, 전월비 증가. 양호한 소비자 수요 등에 기인

- 9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4% 늘었으며 8월(0.0%) 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 이번 결과는 3/4분기 소비자 수요가 최근의 에너지 위기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음을 시사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 또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를 해결해 실물경제에 불필요한 교란을 방지하겠다고 발언. 한편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상하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 적절한 금리 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

■ 중국, 미래 통치에서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를 강조

- 입법 관련 법안의 수정안 초안에서 경제 발전, 개혁, 개방 등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사회발전 이론,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회주의 사상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

■ 일본은행, 완화정책의 출구 전략 시행 시 영향을 점검할 필요

- 10월 통화정책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금 당장 완화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으나 완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과 향후 초저금리 중단 등에 따른 영향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편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내년 원유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

- 내년 원유 생산이 일일 1,231만배럴이 되어 전년 대비 일일 48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이전 전망(일일 61만배럴 증가) 대비 낮은 수준. 최근 석유 업체들도 시설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생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발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ECB 엘더스 위원·영란은행 해스켈 위원 강연
- 미국 9월 도매재고, 중국 10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 양호한 노동시장 등으로 회피가 가능할 전망 - 블룸버그

(A Recession Suddenly Looks Like It Can Be Avoided)

- 고물가와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고용 증가세는 경기침체 위험을 잠재울 것으로 평가. 당초 시장은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시장에 이어 고용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의 양호한 흐름을 중심으로 공급망 혼란 완화, 연준 의장이 언급한 신규 주택임대료 하락 등은 경기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아울러 연방기금금리 인상이 5%에서 중단되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부담 - Reuters

(Nagging U.S. Treasury liquidity problems raise Fed balance sheet predicament)

- 금리인상 속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로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악화. 일각에서는 '20년과 같은 양적긴축 종료 및 대규모 국채매입 가능성을 제기. 이와 관련 투자자들은 지표물과 비지표물 간 스프레드에 주목. 현재 10년물 기준 해당 스프레드는 '15년 3월 이후 최대
- 또한 유동성 악화로 국채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우려. 국채시장의 변동성 예측지표 (MOVE)는 지난 주 128.44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이와 관련 연준은 채권매입이 유일한 대응책. 그러나 고물가가 양적 완화에 기인했기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양적긴축 종료 또는 중단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새로운 2인자 리창 총리 내정자, 경제 관련 도전에 직면 - 블룸버그

(Xi's New No. 2 Faces Challenge to Make China's Economy Hum Again)

- 중국은 코로나 대응 정책에 따른 여파, 주택 시장 문제, 성장 둔화뿐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변화, 미국 기술 제재에 따른 도전 등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
- 리창 총리는 친기업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아울러 테슬라의 첫 해외공장 구축을 지원했으며 원저우 지방정부의 주택시장 과열을 다룬 경험도 보유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본토의 최대 금융허브인 상하이의 2개월 봉쇄를 결정하면서 시진핑의 지도력을 찬양한 전례 등으로 볼 때 실질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

■ **인도의 긍정적 경제 전망, 성장에 굶주린 세계경제에 기회 - Financial Times**

(India's coming decade of outperformance)

- 지난 20년간 세계경제에 있어 성장의 주역은 중국이었지만 인도는 향후 10년간 세계경제 전체 성장에서 1/5을 기여하는 등 뛰어난 성장을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
- 인도의 경제규모는 현재 3.4조달러에서 10년 후 8.5조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하며, '27년경이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국 지위에 오를 전망. 금융시장 규모도 '32년경이면 전세계 3위권에 오를 것으로 관측
- 이러한 두드러진 성장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집중하려는 정책 전환, 젊은 생산가능 인구, 높은 생산성, 공공 디지털 인프라 등에 기인

■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장악 시 부채문제 등의 변화 예상 - Financial Times**

(Debt, Ukraine and Hunter Biden: Republicans prepare for House majority)

■ **미국 국채시장, 일본 정부의 매도로 수급 불안 증폭될 가능성 - WSJ**

(Japan's Waning Appetite for Treasuries Fuels Anxiety on Wall Street)

■ **독일의 비유럽권 국가 투자 제한, 반도체 기술 안보 의지를 반영 - WSJ**

(Germany set to block Chinese chip deal)

■ **영국 자금시장 내 담보 부족, 영란은행의 개입을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A £60 Billion Wall of Cash Fuels UK Market Calls for BOE Action)

■ **유럽의 에너지위기 대응, 신흥국의 에너지 부족을 심화시킬 우려 - 블룸버그**

(Europe's Energy Crunch Will Trigger Years of Shortages and Blackou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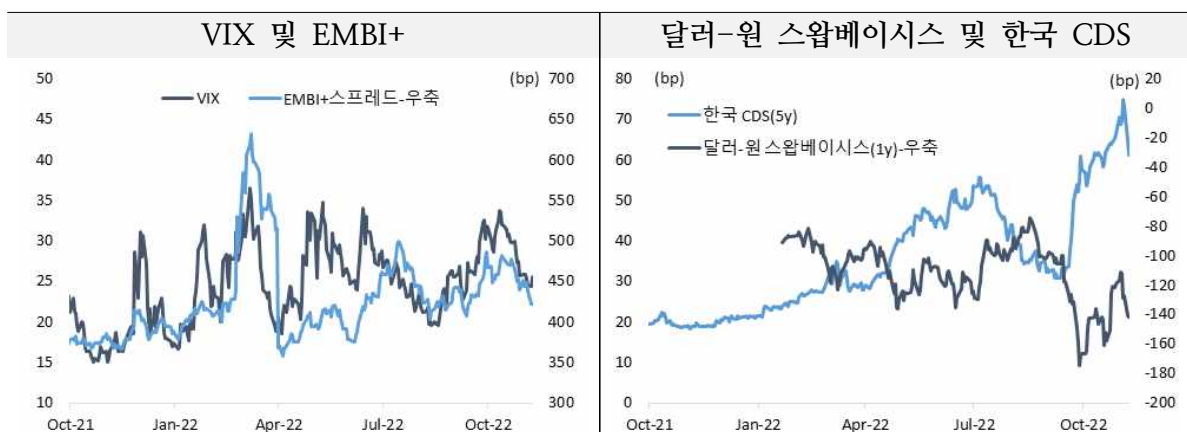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